

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나해

마르 14, 1 - 15, 47

(해설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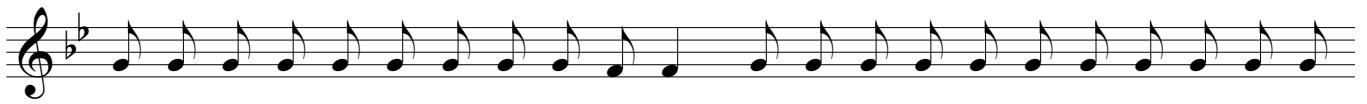


마 르코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(해설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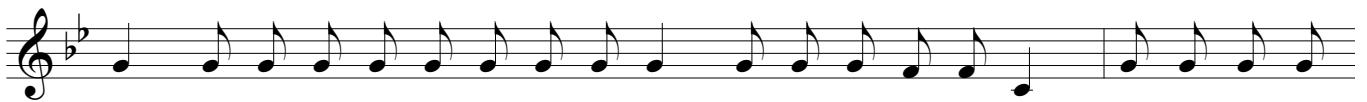
파 스카 와 무 교 절 이 틀 전 이 었 다.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은



어 땡 게 하 면 속 임 수 를 써 서 예 수 님 을 붙 잡 아 죽 일 까 궁



리 하 고 있 었 다. 그 러 면 서 "백 성 이 소 동 을 일 으 킬 지 모 르



니 축 제 기 간 에 는 안 된 다." 하 고 말 하 었 다. 예 수 님 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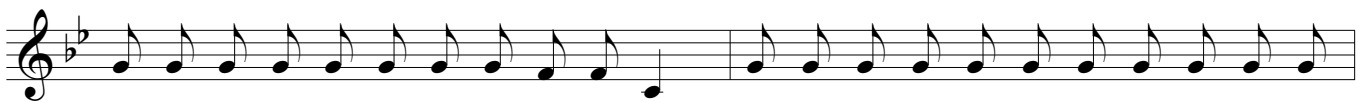
서 베 타 니 아 에 있 는 나 병 환 자 시 몬 의 집 에 계 실 때 의 일 이



다. 마 침 식 탁 에 앉 아 계 시 는 데, 어 떤 여 자 가 값 비 싼 순



나 르 드 향 유 가 든 옥 합 을 가 지 고 와 서, 그 옥 합 을 깨 트 려



그 분 머 리 에 향 유 를 부 었 다. 몇 사 람 이 불 쾌 해 하 며 저 희

(다른사람)
 끼 리 말 하 면 서 그 여 자 를 나 무 랐 다. ["왜 저 령 게 향 유 를

허 투 루 쓰 는 가? 저 향 유 를 삼 백 데 나 리 온 이 상 에 팔 아,

그 돈 을 가 난 한 이 들 에 게 나 누 어 줄 수 도 있 을 터 인 데."]]

(해설자) (그리스도)
 예 수 님 께 서 이 르 셴 다. ["이 여 자 를 가 만 두 어 라. 왜 괴 롭

히 느 냐? 이 여 자 는 나 에 게 좋 은 일 을 하 였 다. 사 실 가 난

한 이 들 은 늘 너 희 곁 에 있 으 니, 너 희 가 원 하 기 만 하 면 언

제 든 지 그 들 에 게 잘 해 줄 수 있 다. 그 러 나 나 는 늘 너 희 곁

에 있 지 는 않 을 것 이 다. 이 여 자 는 자 기 가 할 수 있 는 일 을

하 였 다. 내 장 례 를 위 하 여 미 리 내 몸 에 향 유 를 바 른 것 이

다. 내 가 진 실 로 너 희 에 게 말 한 다. 온 세 상 어 디 든 지 복

음 이 선 포 되 는 곳 마 다, 이 여 자 가 한 일 도 전 해 져 서 이 여

(해설자)
자 를 기 억 하 게 될 것 이 다."] 열 두 제 자 가 운 데 하 나 인 유 다

이 스카 리 옷 이 예 수 님 을 수 석 사 제 들 에 게 팔 아 넘 기 려 고

그 들 을 찾 아 갔 다. 그 들 은 그 의 말 을 듣 고 기 빠 하 며 그

에 게 돈 을 주 기 로 약 속 하 였 다. 그 래 서 유 다 는 예 수 님 을

넘 길 적 당 한 기 회 를 노 렸 다. 무 교 절 첫 날 곧 파 스카 양 을

(다른사람)
잡 는 날 에 제 자 들 이 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스 승 님 께 서

잡 수 실 파 스카 음 식 을 어 디 에 가 서 차 리 면 좋 겠 습 니 까?"]

(해설자) (그리스도)
예 수 님 께 서 제 자 두 사 람 을 보 내 며 이 르 셧 다. ["도 성 안 으

로 가 거 라. 그 러 면 물 동 이 를 메 고 가 는 남 자 를 만 날 터 이

니 그를 따라가거라.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

에게, '스승님께서 '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

내방이 어디 있느냐?' 하고 물으십니다.' 하여라. 그러면

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준 비된 큰 이층방을 보여줄 것이

(해설자)
다. 거기에 다차려라." 제자들이 떠나도 성안으로 가서 보니,

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. 그리하여 그들은 파

스카 음식을 차렸다.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

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.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

(그리스도)
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["내가 진실로 너희

에게 말한다. 너희 가운데 한 사람, 나와 함께 음식을 먹

(해설자)
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."] 그러자 제자들은 큰

(다른사람)
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. ["저는 아니겠지요?"]

(해설자) (그리스도)
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["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

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. 사람의 아

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.

그러나 불행하여라,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!

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

(해설자)
았을 것이다."]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

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, 그것을 떼어 제자들

(그리스도)
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. ["받아라. 이는 내 몸이다."]



(해설자)

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



모두 그것을 마셨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



(그리스도)

["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. 내가



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내가 하늘 나라에서 새 포도



주를 마실 그 날까지, 포도나무 열매로 빛은 것을 결코 다



(해설자)

시는 마시지 않겠다."]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



리브산으로 갔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

(그리스도)

["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. 성경에 '내가 목자를



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.'고 기록되어 있다. 그러나



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.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
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["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

(해설자)
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."]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

(그리스도)
 하셨다. ["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. 오늘이 밤, 닭이

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.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
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. ["스승님과 함께 죽는

한이 있더라도,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

(해설자)
 습니다."]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. 그들은

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

(그리스도)
 씀 하셨다. ["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

(해설자)
 어라."]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.



그 분 께 서 는 공 포 와 번 민 에 휩 싸 이 기 시 작 하 셧 다. 그 래 서

(그리스도)



그 들 에 게 말 씀 하 셧 다. ["내 마 음 이 너 무 괴 로 워 죽 을 지 경

(해설자)



이 다. 너 희 는 여 기 에 남 아 서 깨 어 있 어 라."] 예 수 님 께 서 는



앞 으 로 조 금 나 아 가 땅 에 앞 드 리 시 어, 하 실 수 만 있 으 면



그 시 간 이 당 신 을 비 켜 가 게 해 주 십 사 고 기 도 하 시 며, 이

(그리스도)



렇 게 말 씀 하 셧 다. ["아 빠! 아 버 지! 아 버 지 께 서 는 무 엇 이



든 하 실 수 있 으 시 니, 이 잔 을 저 에 게 서 거 두 어 주 십 시 오.



그 러 나 제 가 원 하 는 것 을 하 지 마 시 고 아 버 지 께 서 원 하 시

(해설자)



는 것 을 하 십 시 오."] 예 수 님 께 서 돌 아 와 보 시 니 제 자 들



은 자 고 있 었 다. 그 래 서 베 드 로 에 게 말 씀 하 셧 다.

(그리스도)
[“시몬아, 자고 있느냐?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

냐?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.

(해설자)
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.”] 예수님께서 다시

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. 그리고 다시와 보시

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 감겨 자고 있었다.

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

랐다.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

(그리스도)
하셨다. [“아직도 자고 있느냐? 아직도 쉬고 있느냐?

이제 되었다.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

넘어간다. 일어나 가자. 보라,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

(해설자)
 까 이 왔다."] 그 러 자 곧, 예 수 님 께 서 아 직 말 씀 하 고 계 실

때 에 열 두 제 자 가 운 데 하 나 인 유 다 가 다 가 왔 다. 그 와

함 께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과 원 로 들 이 보 낸 무 리 도

칼 과 몽 등 이 를 들 고 왔 다. 그 분 을 팔 아 념 길 자 는,

(다른사람)
 ["내 가 입 맞 추 는 이 가 바 로 그 사 람 이 니 그 를 붙 잡 아 잘

(해설자)
 끌 고 가 시오."] 하 고 그 들 에 게 미 리 신 호 를 일 러 두 었 다.

(다른사람)
 그 가 와 서 는 곧 바 로 예 수 님 께 다 가 가 말 하 였 다. ["스 - - 승 님!"]

(해설자)
 그 러 고 나 서 입 을 맞 추 었 다. 그 러 자 그 들 이 예 수 님 께

손 을 대 어 그 분 을 붙 잡 았 다. 그 때 결 에 서 있 던 이 들 가

운 데 한 사 람 이 칼 을 빼 어, 대 사 제 의 종 을 내 리 쳐 그 의 귀



를 잘 라 버 렸 다. 예 수 님 께 서 나 서 시 어 그 들 에 게 말 씀

(그리스도)



하 셸 다. ["너 희 는 강 도 라 도 잡 을 듯 이 칼 과 몽 등 이 를 들 고



나 를 잡 으 러 나 왔 단 말 이 냐? 내 가 날 마 다 너 희 와 함 께 성



전 에 있 으 면 서 가 르 쳤 지 만 너 희 는 나 를 불 잡 지 않 았 다.

(해설자)



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이 리 된 것 이 다."] 제 자 들 은



모 두 예 수 님 을 버 리 고 달 아 났 다. 어 떤 젊 은 이 가 알



몸 에 아 마 포 만 두 른 채 그 분 을 따 라 갔 다. 사 람 들 이 그 를



불 잡 자, 그 는 아 마 포 를 버 리 고 알 몸 으 로 달 아 났 다.



그 들 은 예 수 님 을 대 사 제 에 게 끌 고 갔 다. 그 러 자 수 석 사



제 들 과 원 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이 모 두 모 여 왔 다. 베 드 로 는



멀 짝 이 떨어 저 서 예 수 님 을 뒤 따 라 대 사 제 의 저 택 안 뜰



까 지 들 어 가, 시 종 들 과 함 께 앓 아 불 을 쫓 고 있 었 다.



수 석 사 제 들 과 온 최 고 의 회 는 예 수 님 을 사 형 에 처 하 려 고



그 분 에 대 한 증 언 을 찾 았 으 나 찾 아 내 지 못 하 였 다. 사 실



많 은 사 람 이 그 분 께 불 리 한 거 짓 증 언 을 하 였 지 만, 그 증



언 들 이 서 로 들 어 맞 지 않 았 던 것 이 다. 더 러 는 나 서 서 이



(다른사람)

렇 게 거 짓 증 언 을 하 기 도 하 였 다. ["우 리 는 저 자 가, '나 는



사 람 손 으 로 지 은 이 성 전 을 허 물 고, 손 으 로 짓 지 않 는 다



른 성 전 을 사 흘 안 에 세 우 겠 다.' 고 말 하 는 것 을 들 은 적 이



(해설자)

있 습 니 다."] 그 들 의 증 언 도 서 로 들 어 맞 지 않 았 다.



그 러 자 대 사 제 가 한 가 운 데 로 나 서 서 예 수 님 께 물 었 다.



["당 신 은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소? 이 자 들 이 당 신 에 게 불 리



한 증 언 을 하 는 데 어 찌 된 일 이 오?"] 그 러 나 예 수 님 께 서 는



입 을 다 무 신 채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셸 다. 대 사 제 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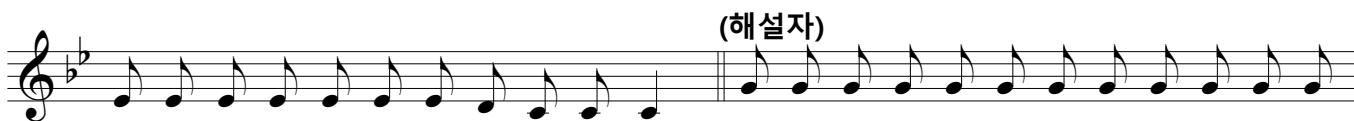
다 시 물 었 다. ["당 신 이 찬 양 받 으 실 분 의 아 들 메 시 아 요?"]



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셸 다. ["그 령 다. '너 희 는 사 람 의 아 들



이 전 능 하 신 분 의 오 른 쪽 에 앉 아 있 는 것 과 하 늘 의 구 름



을 타 고 오 는 것 을 볼 것 이 다."] 대 사 제 가 자 기 옷 을 찢 고 이 령



게 말 하 였 다. ["이 제 우 리 에 게 무 슌 증 인 이 더 필 요 합 니 까?



여 러 분 도 하 느 님 을 모 독 하 는 말 을 듣 지 않 았 습 니 까?



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"]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서



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. 어떤 자들은 예



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, 주먹으로



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. ["알아맞혀보아라."] 시종



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.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



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, 불을 쬔고 있는 베드로를



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. ["당신도 저나 자



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!"] 베드로는 부인하



였다. ["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



도 못하겠소."] 베드로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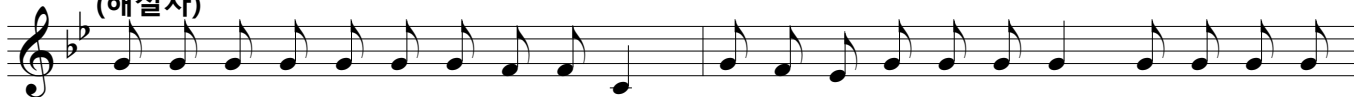
그 하 녀 가 베 드 로 를 보 면 서 결 에 서 있 는 이 들 에 게 다 시

(다른사람)



말 하 기 시 작 하 였 다. ["이 사 람 은 그 들 과 한 패 예 요."]

(해설자)



베 드 로 는 또 부 인 하 였 다. 그 런 데 조 금 뒤 에 결 에 서 있

(다른사람)



던 이 들 이 다 시 베 드 로 에 게 말 하 였 다. ["당 신 은 갈 름 래

(해설자)



아 사 람 이 니 그 들 과 한 패 임 에 틀 림 없 소."] 베 드 로 는



거 짓 이 면 천 벌 을 받 겠 다 고 맹 세 하 기 시 작 하 며 말 하 였 다.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["나 는 당 신 들 이 말 하 는 그 사 람 을 알 지 못 하 오."] 그 러 자 곧



닭 이 두 번 째 울 었 다. 베 드 로 는 예 수 님 께 서, "닭 이 두 번



울 기 전 에 너 는 세 번 이 나 나 를 모 른 다 고 할 것 이 다." 하 신



말 씀 이 생 각 나 서 울 기 시 작 하 였 다. 아 침 이 되 자 수 석 사 제



들은 곧 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, 곧 온 최고의 회와



의논한 끝에,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



넘겼다.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 ["당신이 유대인들

(다른사람)



의 임금시오?"]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 ["네가 그렇게 말

(해설자)

(그리스도)



하고 있다."]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

(해설자)



소하였다.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. ["당신은

(다른사람)



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? 보시오. 저희가 당신을 갖가지로



고소하고 있지 않소?"]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

(해설자)



지 않으셨다.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. 빌라도는



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



하였다. 마침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때에살인을저지른



반란군들과함께감옥에있었다. 그래서군중은올라가



자기들이해오던대로해달라고요청하기시작하였다.

(다른사람)



빌라도가그들에게물었다. ["유다인들의임금을풀어주

(해설자)



기를바라는것이오?"] 빌라도는수석사제들이예수님을



시기하여자기에게넘겼음을알고있었던것이다. 그러나



수석사제들은군중을부추겨그분이아니라바라빠를



풀어달라고청하게하였다. 빌라도가다시군중에게

(다른사람)



물었다. ["그러면여러분이유다인들의임금이라고부르

(해설자)



는이사람은어떻게하기를바라는것이오?"] 그러자군

(회중) (해설자)
 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. [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 빌라도

(다른사람)
 가 그들에게 물었다. ["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

(해설자) (회중)
 이오?"]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. ["십자가에

(해설자)
 못 박으시오!"]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,

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

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. 군사들은 예수님을 틀 안

으로 끌고 갔다.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. 그들은 온 부대

를 집합시킨 다음,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

엮어 머리에 씌우고 서는,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

(다른사람) (해설자)
 하였다. ["유대인들의 임금님, 만세!"] 또 갈대로그분의



머 리 를 때 리 고 침 을 빨 고 서 는, 무 릎 을 꿇 고 옆 드 려 예 수



님 께 절 하 였 다. 그 령 게 예 수 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자 주



색 옷 을 벗 기 고 그 분 의 겹 옷 을 입 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 을



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. 그 들 은 지 나 가 는 어 떤



사 람 에 게 강 제 로 예 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.



그 는 키 레 네 사 람 시 몬 으 로 서 알 려 산 드 로 스 와 루 포 스 의



아 버 지 였 는 데, 시 골 에 서 올 라 오 는 길 이 였 다. 그 들 은 예



수 님 을 끌 고 타 라 는 곳 으 로 데 리 고 갔 다. 이 는 번 역 하 면



'해 골 터' 라 는 뜻 이 다. 그 들 이 몰 약 을 탄 포 도 주 를 예 수 님



께 건 냈 지 만 그 분 께 서 는 받 지 않 으 셸 다. 그 들 은 예 수

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.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

누어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

하였다.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

아홉시였다. 그분의 죄명패에는 '유대인들의 임금'이

라고 쓰여 있었다.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

가에 못 박았는데,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

에 못 박았다.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

(다른사람)
렇게 모독하였다. ["저런!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

짓겠다 더니,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 구해보아라."]

(해설자)
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

(다른사람)



(해설자)



(그리스도)

(해설자)



(그리스도)



(해설자)



(다른사람)



(해설자)
그 러 자 어 떤 사 람 이 달 려 가 서 해 면 을 신 포 도 주 에 적 신 다

음,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라 고 갓 다 대 며 말 하 였 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["자, 엘 리 야 가 와 서 그 를 내 려 주 나 보 시 다."] 예 수 님 께

서 는 큰 소 리 를 지 르 시 고 숨 을 거 두 셧 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.]

(해설자)
그 때 에 성 전 휘 장 이 위 에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그 리 고 예 수 님 을 마 주 보 고 서 있 던 백 인 대 장 이 그 분 께 서 그

(다른사람)
렇 게 숨 을 거 두 시 는 것 을 보 고 말 하 였 다. ["참 으 로 이 사

(해설자)
람 은 하 느 님 의 아 드 님 이 셧 다."] 여 자 들 도 멀 리 서 지 켜 보

고 있 었 는 데, 그 들 가 운 데 에 는 마 리 아 막 달 레 나, 작 은 야

고 보 와 요 세 의 어 머 니 마 리 아, 그 리 고 살 로 메 가 있 었 다.

그 들 은 예 수 님 께 서 갈 름 래 아 에 게 실 때 에 그 분 을 따 르 며

시 중 들 던 여 자 들 이 었 다. 그 밖 에 도 예 수 님 과 함 께 예 루

살 렘 에 올 라 온 다 른 여 자 들 도 많 이 있 었 다. 이 미 저 녁 때

가 되 어 있 었 다. 그 날 은 준 비 일 곧 안 식 일 전 날 이 었 으

므 로, 아 리 마 태 아 출 신 요 셉 이 빌 라 도 에 게 당 당 히 들 어 가,

예 수 님 의 시 신 을 내 달 라 고 청 하 였 다. 그 는 명 망 있 는 의

회 의 원 으 로 서 하 느 님 의 나 라 를 열 심 히 기 다 리 던 사 람

이 었 다. 빌 라 도 는 예 수 님 께 서 별 썬 돌 아 가 셧 을 까 의

아 하 게 생 각 하 여, 백 인 대 장 을 불 러 예 수 님 께 서 돌 아 가 신

지 오 래 되 었 느 냐 고 물 었 다. 빌 라 도 는 백 인 대 장 에 게 알 아

보 고 나 서 요 셉 에 게 시 신 을 내 주 었 다. 요 셉 은 아 마 포

를 사 가 지 고 와 서, 그 분 의 시 신 을 내 려 아 마 포 로 싣 다 음

바 위 를 깎 아 만 든 무 덤 에 모 시 고, 무 덤 입 구 에 돌 을 굴 려 막

아 놓 았 다. 마 리 아 막 달 레 나 와 요 세 의 어 머 니 마 리 아 - 는

그 분 을 어 디 에 모 시 는 지 지 켜 보 고 있 었 - 다.

(해설자) (회중)
주 님 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